

새로 나온 詩集

유년의 강

姜靜花 지음

「시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첫시집 「바람도 어둡도」를 비롯, 「머저리 행진」 「눈내린 날의 역사」를 발표했던 시인의 제4시집.

배금주의와 자연에 대립되는 물질문명에 대한 강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들과 함께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리움'의 시, 고향·추억·유년에 대한 '회상공간'으로서의 시 등 다양한 시세계를 펼치고 있다. 권말에 평론가 박진환씨의 평을 함께 수록.

시문학사 / B6신 / 102면 / 2000원

等外品

金勝立 지음

86년 「외국문학」으로 등단한 젊은 시인의 첫시집.

“엇저녁 죽은 사내들의 그림자 / 추운 강물로 살아나 / 알몸으로 울고 있다 / 우리네 허술한 피들이 쓰게 / 울음 우는 강이여”(「落日」중)와 같이 시대나 역사를 ‘단단한 어둠’으로 보면서도 “어느날,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 키보다 길어졌을 때 혹은 / 엇바뀌 끼운 단추를 챙기려 /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 敵은 우리의 內部에서 / 차고 음험하게 웃고 있었다”(「안개」중)는 자기성찰로의 회귀의 모습을 보여준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2면 / 2400원

욕망, 그 가면극

강월도 지음

1954년 시집 「태양을 위한 환상」을 발표한 후 도미, 30년만에 귀국해 내놓은 시인의 제2시집.

시인 자신이 ‘어린 시절’이라 부르는 청년기의 시들과는 달리 오랜 해외체류 기간을 통해 축적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원숙한 철학적 시각이 돋보이고 있는데, 「서시」를 비롯한 총 52편의 시들을 5장으로 나누어 묶고 6장으로 ‘청문탁설’ 등 단상 7편을 함께 수록. 일선기획 / B6신 / 108면 / 2000원

살고 싶은 가슴

오동춘 지음

‘흙의 문학상’ ‘한국기독교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시인의, 「잠들어 안개면」 이후의 시들을 모은 제6시집. ‘살고 싶은 가슴’ ‘겨울 보면’ ‘소리 같은 소리’ ‘나는 슬빠다’의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시인의 병상체험을 통해

느낀 “아픈 사람들의 절절한 가슴, 살고 싶은 가슴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다.

교원문학사 / A5 / 220면 / 3500원

가을강

김문희 지음 / 이풍호 옮김

「시문학」 천료로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눈뜨는 풀잎」에 이은 제2시집.

신작시들과 함께 첫시집 일부를 한영대역했는데, 총41편의 시들을 ‘안개꽃 아침’ ‘석양에서서’ ‘가을강’ ‘겨울비’의 4부로 나누어 묶었다.

나무·바람·햇볕 등 자연을 매개로 한 시인의 내면묘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섬세하고 깔끔한 감정처리가 돋보인다.

시문학사 / B6신 / 116면 / 2500원

시린 손을 닦으며

金貞沅 지음

85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 현재 「미래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여성 특유의 모성애를 보여주는 시편들과 함께 도시 주부의 일상을 차분하면서도 건강하게 형상화하고 있는데, 총71편의 시들이 ‘계절을 향하여’ ‘기억 속의 세상’ ‘낮과 밤 사이’ ‘남한산성에 올라’의 4부로 나누어 실려있다. 권말에 문학평론과 이선영씨의 평론을 함께 수록.

문학세계사 / B6신 / 114면 / 2400원

남촌에 전화를 걸며

정대구 지음

72년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나의 친구 우철동씨」 「우리들의 배개」 「수색 쪽 하늘」 등의 시집을 통해 따뜻한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제7시집.

동양적 삶의 일상을 바탕으로 가족들과의 인륜적 생활의 관계회복을 지향하는 서정적이고 화해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63편의 시들이 ‘한때는 공자를’ ‘높은 곳에 올라’ ‘눈꽃 별곡’ ‘봄바다 앞에서’의 4부로 나뉘어 실려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8면 / 2400원

까치와 모국어

오문강 지음

현재 미주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8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얼마 만인가 / 까치가 모국어로 / 일찍 나를

깨웠다 / 눈물나도록 반가운 저 소리”와 같이 오랜 외국생활에서 절감하는 모국어에 대한 사랑이 담긴 표제시 ‘까치와 모국어’를 비롯 ‘한글공부’ ‘훈민정음’ 등 45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삼성출판사 / A5 / 100면 / 2000원

물헌 들

이상준 지음

한국의국어대 영어과 교수로 재직중인 시인의 제2시집.

뚜렷한 내용전달과 인간의 보편적 인식에 근거한 ‘시의 설득력’을 지향하는 시인의 경구풍의 시들을 모았는데, 정연한 논리와 반복적 구문의 구사를 통해 행간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논리적 구성과 소박한 서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시인 이영걸씨의 평.

뿌리 / B6신 / 122면 / 2000원

봄도 아닌 겨울도 아닌 날에

곽상희 지음

「현대문학」천료로 등단한 이래 「바다 건너 木管樂」 「우리 지금은 아무도 노래하지 않네」 등의 시집과 장편소설 「뉴욕 갈매기」를 발표한 바 있는 시인의 제3시집.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근거로 한 사랑·부활·구원의 사상과 함께 동양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서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역사적·현실비판의식을 기초로 조국에 대한 연모의 정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청한 / B6신 / 150면 / 2500원

아름다운 것들은 아주 가까이 에 있습니다

김홍기 지음

「無衣」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시집 「내게로 오실 때에는」을 출간했던 시인의 제2시집.

‘화려한 것들’에 밀려 점차 의미를 잃어가는 ‘소박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하는 시편들로, ‘가장 아름다운 것’ ‘꿈뭉살’ ‘거꾸로 서는 깨감’ ‘껌질없는 달팽이의 노래’의 4부로 나뉘어 36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서원 / B6신 / 118면 / 2000원

내 울음은 노래가 아니다

이생진 지음

「현대문학」천료로 등단한 이후 첫시집 「산토끼」를 비롯, 「섬에 오는 이유」 「시인의 사랑」 등 많은 시집을 발표했던 시인의 제1

3시집.

별·거미·사마귀·바퀴벌레·파리같이 살아있는 생명체 중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소외된 삶을 사는 곤충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생활정서와 시인이 부여한 그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총 115편의 시들과 함께 시인 자신이 직접 스케치한 곤충삽화가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청하 / B6신 / 138면 / 2500원

춤추는 허사비

최절로 지음

「여섯자의 이 인간이 어디서 살고 하니」 「부재속을 흐르는 강」 「인간중독자」 등의 시집을 통해 담백하고 질박한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제10시집.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지켜야할 純情을 담은 1부 ‘꽃과 사랑’을 비롯, 농촌의 인고와 한을 그린 2부 ‘고향의 실개천 달이 흐르고’, 세대비판과 우국의 염을 노래한 3부 ‘詩人의 깃발’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베텔사 / B6신 / 164면 / 2800원

한 여자가 매를 맞고 있다

보즈네센스기 지음 / 이항재 옮김

현재 소련시단을 주도하고 있는 ‘전후파 시인’의 대표주자인 시인의 시선집.

1957년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시들을 연대순으로 묶었는데, 전쟁·죽음·폭력·불의를 노래한 초기시에서 현대문명 속에서 사물화되어 가는 인간의 비극을 그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시인의 다양한 시세계와 변모를 엿볼 수 있다. 권말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자의 ‘현대 소련시의 흐름’을 함께 수록.

시문학사 / B6신 / 124면 / 2500원

허수아비가 사람을 닮아간다고

신명완 지음

현직 교사로 재직중인 시인의 첫시집.

총83편의 시들을 3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과거 역사적인 사실의 단편이나 시인 자신의 역사발전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한 ‘이야기’시, 다양한 언어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시, 그리고 인간의 잃어버린 건강한 원시성에 대한 복원작업으로서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홍 / B6신 / 160면 / 2000원